

2006 방과후 학교 성과보고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기 전에 보고서를 받았고, 전시현장도 둘러 봤습니다. 문서로 보던 것을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준비된 것이어서 생생한 느낌은 조금 덜 합니다만, 제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방과후 학교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그래도 이만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 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이 문제인데, 느낌은 질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이래로 선생님들에게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혁하는 것 다 반대하고, 자기들 밥 그릇 생각이나 하고, 좀 사명감 가지고 헌신해야지, 권리만 주장하고.... 그렇게 불평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오늘 고치겠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힘드실 텐데 참고 이만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들 신뢰하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박수)

교육적 성과 그 이상의 성과 거둘 수 있을 것

이 프로그램에 여러 단체, 지역사회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 했던 것 이상의 수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의미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적 성과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짝을 보았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지방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대로 되면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자랑하고 싶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정책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불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교육문제 해결뿐 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인교육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교육 뿐 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이라든지 여성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 이런대도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형성된 다양한 공동체, 그 보다 근본적인 지역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지역 평생교육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국민적 역량도 향상시키고 행복도 수준이 높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성공전략을 여러분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역시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될 리가 없고, 교육부장관, 교육장, 교육감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생님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감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예산도 다른 예산 깎더라도 필요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자체에서도 돈 좀 내게, 다른 것 다 덮어놓고 여기에 돈 좀 먼저 투자하게 그렇게 정책을 모아갑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약속했던 것, 그 두 배 정도로 다시 한번 열정을 모아서 정책을 다듬어 나갑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서 학생도, 학부모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흥미롭게 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에 너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사교육 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하는 게 낫다

선생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칭찬 말씀 드렸으니까,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을 유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입시를 위한 보충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방과 후 학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시보충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과교육을 반대한다, 여기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방과 후 교육이라는 것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교육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교육이라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을 보충 교육이라고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직된 사고입니다. 학교 안에서 해주지 않으면 결국 바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도 떨어지고, 비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고 안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다음 이 영역에서도 경쟁이 부담스럽습니다. 교육을 하는 선생님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학부모들이 비교하고, 페스티벌하고, 경연 열어 가지고 자꾸 경쟁하니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사는 이치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생태계 존재자체가 그렇고, 사회의 존재 양식이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경쟁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수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외부에 역량 있는 선생님이 들어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를 학원화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내용을 봐야 합니다. 학원화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원화하려고 하느냐고 묻지 말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더 저렴한 부담으로, 더 적은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학교이지, 학원처럼 하려고 하느냐, 그런다고 선생님의 품위가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 사고 필요, 교단은 아이들을 위해 있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너그럽

게 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방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은 아이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사명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이죠. 여건을 먼저 갖춰주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당신들이 열심히 해 성과를 보여주면 우리가 세금 더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결국 누가 먼저 할 거냐. 선생님들이 먼저 좀 하십시오. 정부가 밀어주어야 되는데, 돈을 쓰자면 국민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를 성공시켜 놓고, 정부가 마음 놓고 돈을 좀 쓸 수 있게 유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교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 여러 기관 참여 정말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이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교육하는 내 아이만 다르게 교육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내 아이와 우리 아이들 모두를 선택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 학교 교육이야말로 내 아이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교육시키는 장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면 여기에서 이웃이 생기고 지역에 공동체가 생기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들의 아이들이 안전한 배움터, 휴식처를 밤에도 유지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스스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가 공교육 중심 되도록 대학교가 도와줘야

성공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학교가 지원을 통해 이 프로그램 참여해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 제도를 공교육이 중심될 수 있도록 유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안 되고 학원에 가서 베끼기 연습을 열심히 해야 대학교에 가는 한 공교육은 바로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가 좋은 아이 뽑기 경쟁하지 말고, 대강 우수한 아이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좋은 아이 만들기 경쟁 좀 하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그것이 대학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이 있고 최고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는 이미 한국에 열려있습니다. 전 국민을 한 줄로 줄 세우기 경쟁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경쟁은 있어야 하지만, 전 국민을 한 줄로 서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인재를 만들기 위해 예외적 교육제도는 열려 있으니, 거기에서 세계 인재를 만들어 내고, 적당하게 필요한 유능한 인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성 있게 만들어 내고, 그 다음 수준 아래 떨어지는 사람들은 국가가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수준 책임지고 끌어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대학 뿐 만 아니고 우리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획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내고 다양성을 용납할 수 없는 숨 막히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적어도 초중등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초중등 학교까지는 그야말로 방과후 학교가 특기적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입시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인식 새롭게 해 주길

아울러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한 말씀 드리고 싶

습니다. 우리 국민들, 오늘의 우리 교육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자학적 통념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곱씹어 보고 우리 머릿속에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 그냥 남아서 너무 자학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검증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 때문에 시끄럽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잘된다고,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할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증명합니다. 중등교육은 세계 수준입니다. 아이들 실력,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외국에 공부 보내고 기러기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심정적으로 동정이 가긴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이 제일 약점인데 영어교육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몇 년 뒤에는 한국의 영어교육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육 100대 들어가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젊은이들이 그렇게 무능하다면 오늘 경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가르쳤든 어떻게 배웠든 지금 대학교를 나온 젊은이들이 대학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하나하나 따라잡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 대학교육 혁신하고 있습니다. 교편 잡고 있는 교수님께서 도대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변화의 속도를 개인 개인이 따라 잡자고 하니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자리도 불안하고 그래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대학교는 혁신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곧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이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대학교가 유학생을 받는 대학교로 그렇게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

각합니다. 그 수준까지 갑시다.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 제대로 평가하자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유학생을 받는 나라로 대학 만들어봅시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 수준을 낮게 평가 하지 말아야합니다. 우리 국민이 사주어야 우리 자동차도 품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줘서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부심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합시다. 학교, 선생님에 대해 믿음을 가집시다. 저도 골치 아픕니다. 대통령하는 것 마다 반대하고, 욕하고, 그런데 다 자기 사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 믿음가지고 더 잘 해 달라고 격려합시다.

교육정책에 대해 조령모개, 조변석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제도 안 바꾸고 그냥 놔두었으면 교육이 잘 되었겠습니까. 아침저녁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었지만, 입시제도 바뀌었지만, 그것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바꾼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창의력 교육, 그래서 전인교육을 하고, 경쟁력 있는 인간을 만든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기 위해 획일화된 교육을 어떻게 뛰어 넘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지옥, 부모들에게 사교육비, 그리고 중등학교 선생님들의 교단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살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바꾸었습니다. 입학생을 둔 부모들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해 고달프지만 교육이 점차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정책, 공교육 살린다는 한 방향 목표 가지고 변화

교육부 없으면 교육 잘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부가 있어야 교육이 잘됩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계의 변화를 좀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학교 다닐 때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평가하면 안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는 안되고, 학부모도 그래서는 안됩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잘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리가 잘 커야 내 아이가 더불어서 잘 크고, 동업할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이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가의 공교육을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학원하시는 분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흡수돼 역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교육성공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는데 우리 교육,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엉망 아닙니다. 믿고, 참여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함께 고쳐갑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